

## 일본 주요 산업 시장의 동향(20년 하반기)

※ 이 자료는 三井住友銀行「グローバル経済と主要産業の動向(2020年度下期) - 主要産業の動向, 医薬品, 電子部品・半導体, 機械, 自動車, 造船, 情報サービス」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의약품, 기계, 자동차, 선박 산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로 수요가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해외기업과 협업, 이업종과 연대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음.
- 전자부품, 반도체 시장 또한 수요가 감속되어 시장이 축소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될 전망.
- 정보서비스 산업 시장은 안정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시장규모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의약품 업계 동향과 이후의 전망

- 일본 제약사들은 글로벌 수익력 강화를 목표
  - 일본 국내에서의 의약품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가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한 약 값 인하(2020년도는 4.38% 인하)의 결과 의약품 시장은 2015년 이후 축소 경향이 지속됨.
  - 이런 가운데 구미(유럽과 미국) 대기업과의 신약개발·판촉활동의 동맹, 해외기업 매수에 의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제약사의 업계 실적 하락세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외래환자 감소, 수술실시 연기,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활동 억제 등의 영향을 받음.
  - 위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 2020년도 제약사의 업계 실적이 하락의 원인이 됨.
- 일본 국내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양, 단가 하락의 우려
  -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후에도 일정 기간 의약품 수요가 침체할 가능성이 우려됨.
  - 또한 2년에 한 번 했던 약값 개정을 2020년도부터 매년 실시함으로 인해 약 값 인하 속도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료하는 디지털 약에 관한 관심 고조

- 2020년 8월에는 니코틴 의존증 치료용 앱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약사 승인을 취득함.
- 일본 국내 제약사도 미국 계열 벤처기업 등과 협업하여 약제와 비교하여 개발 코스트 및 부작용 리스크가 적은 디지털 약 개발에 몰두하여 장기적으로 만성질환 치료의 주요한 선택지의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lt;표1&gt; 일본계 기업에 의한 디지털 약 관련 활동 사례

회사명	사례 개요
CureApp	니코틴 의존증 치료용 앱 개발. 치료용 앱으로는 일본 최초의 약사 승인을 취득.
아스텔라스 제약	미국의 WellDoc사와 AI 기술을 활용한 당뇨병 치료용 어플 「BlueStar」를 일본 국내 제공.
에자이(Eisai)	DeNA 자회사(子会社)와 치매 예방을 위한 앱 「Easiit」을 공동 개발. 2020년 7월부터 서비스 개시.
시오노키제약	소아를 대상으로 한 ADHD 치료용 앱 「AKL-T01」이 미국 FDA의 승인 취득.
오즈카(Otsuka) 홀딩스	미국의 Click Therapeutics사와 우울증 치료용 앱의 공동 개발, 판매의 계약을 체결.

## □ 전자부품, 반도체 업계 동향과 이후의 전망

## ○ 전자부품, 반도체 업계 동향

- 2019년에는 전자부품, 반도체 시장(메모리를 제외)의 수요가 감속되어 시장이 축소됨. 지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판매 저조, 2020년에는 한 단계 더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 됨.
-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2019년 후반부터 추가 생산을 늦추거나 구식 라인 감산을 실행함. 또한 IT 대기업에 의한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의 수요에 이바지함 또한 크며, 2019년 말부터는 수급이 개선되어 시장 확장으로 옮겨 나감.

-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자부품, 반도체 시장은 자동차 수요의 확대나 5G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한 교체의 촉진 등을 배경으로 확대가 기대됨.
- AI·IoT 분야의 강화 등을 위한 대처의 가속화.
  -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요의 중축이 IT 기기(PC, 스마트폰 등)에서 차재, 산업용 IoT·AI 분야로 변하던 중, 대기업 반도체 메이커 간의 대형 인수, 합병이 발생.
  - 인수, 합병의 경향으로는 (1) IT 기기용 제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성장 분야를 아우르는 움직임. (2) 전망되는 차재, 산업분야에서의 제품 확충을 위한 깊은 협업 등이 주요한 움직임이 되고 있음.
  -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차재, 산업분야의 강화를 계획한 대형 매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5G 대응 기지국 용이나 전자 부품의 탑재 수의 증가가 기대되는 5G 대응 스마트폰의 수요 대처를 향해 고 주파수대에 대응 가능한 전자 부품의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 □ 기계 업계 동향과 이후의 전망

- 코로나의 영향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수요가 급감
  - 일본 내에서는 경기 영향이 적은 관공(官公)용 기계는 착실하게 수요가 있지만, 민간용은 급감하고 있어 2020년 4~7월의 기계수주는 크게 하락한 2019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 됨.
  - 감염 재확대가 발생할 경우 수요 감소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IoT 활용을 향해 다른 업종과 연대
  - 일손부족의 심각화와 더불어 유저 생산효율의 수요가 높아지는 와중, 센싱 기술의 진화를 배경으로 기계 메이커 회사는 자동 운전기능을 가진 건설기계, 농기계 또는 공장의 자동화에 연결되는 IoT 대응이 가능한 공업기계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 정보통신기술의 진화를 향해 IT 관련 기업이나 통신 사업자와의 연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에도 이러한 타업종과의 연대가 기대됨.

&lt;표2&gt; 공작기계 메이커의 동향

기업명	연월	내용
오쿠마	2020년 3월	장쑤성에서의 공작기계공장을 신설. 2020년에 월산 40대, 2022년에 75대 예정.
FUJI	2020년 4월	장쑤성법인 「곤산지후지기계제조」에서 일관 생산 시작.
시티즌 머시너리	2021년 2월	산둥성에 CNC 자동선반 공장을 신설 예정. 생산 능력은 기존 공장의 2배.
마키노프라이스제작소	2021년도 예정	장쑤성 법인「마키노책상(중국)」에 방전가공기(EDM) 공장을 증설 예정.
츠가미	2021년 12월	안수이성에서 고정밀도 NC(수치제어) 공작기계공장을 건설 예정.

#### □ 자동차 업계 동향과 이후의 전망

-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판매 대수 감소
  - 각국의 도시 봉쇄 및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2020년 전반기 자동차 판매생산활동은 크게 정체 됨.
  - 5월 이후는 서서히 경제활동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며 수요는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세계 판매 대수는 약 74만대로 전년대비 -18% 정도 감소함.
- 수요 급감 및 생산 조정 등에 의한 수출 감소 예상
  - 2019년도 일본의 완성차 메이커 7 사 합계 업적은 미중 무역마찰 등에 의해 판매 대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 2020년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해 유럽 및 미국, 아시아 등의 주요국에서의 수요 급감에 의해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
- 시장 회복에는 3~4년을 요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아시아에서는 자본 도피나 재정 적자에 의한 경기 침체 등을 배경으로 일부의 나라에서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 있음.
- 개발 부담 경감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인수, 제휴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9월에는 GM과 혼다가 북미시장에 대한 연구개발과 공동구매, 커넥티드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협업의 가능성을 발표.
- 자동차 부품 공급자에서는 대기업 메이커가 연달아 일부 사업의 매수 매각을 행함.

#### □ 조선(造船) 업계의 동향과 전망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 수주량의 침체
  - 2020년의 조선 수주량은 수요의 불투명감 고조됨에 따라 선주가 발주를 억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져, 1~9월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49.4%의 27백만 DWT가 됨.
  - 코로나 바이러스 및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화물 이동 수요의 장래는 불투명, 구조적인 문제인 선복량 과잉의 해소도 진전되지 않으며 수주량의 저조함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엔화의 강세와 한중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짐.
  - 일본계 선박 회사의 2020년도 업적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배의 준공 및 엔화의 강세를 배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장 3사(가와사키중공업, 나이카이조선, 미츠이E&SHD) 모두 영업적자를 예상.
  - 과잉생산 능력을 가진 한중 업체와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새로운 조선 수주잔고의 감소가 진행되어 가격경쟁이 한 단계 격화될 전망.
  -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선박 각 사의 수주잔고의 감소가 진행됨.
  - 각국의 조선소의 수주잔고를 근 3년 평균 준공량과 비교하면, 국유 해운회사 및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수요의 뒷받침이 보이는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조업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2년 치를 밀돌고 있어 수주 경쟁자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무인 운항선의 개발이 가속되어 외국계 기업과의 차별화.

- 2020년 6월 일본재단은 조선소 및 해운회사 외에도 상사, IT기업 등으로 구성된 5개의 컨소시엄을 선박의 무인 운항에 관한 기술의 실증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것을 발표.
- 대상 사업으로는 폭주 해역(선박 교통이 매우 많은 해역- 도쿄만, 이세만, 세토나йка이)의 무인 운항 등, 세계 최초로 실제 증거가 중심이 되어, 2025년까지 무인 운항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음.
- 일본계 조선소에게 있어서 무인 운항은 외국계 기업과의 차별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 개발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 정보서비스 업계의 동향과 이후의 전망

○ 일본 정보서비스 산업의 경향

- 일본 국내의 정보서비스 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에 의한 시스템 구축 안건의 지연 등도 일부 보였으나 원격근무환경의 구축을 향한 투자, DX(Digital Transformation)의 진전 등으로 인해 시장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공급 면에서는 지속된 엔지니어 부족의 심각화로 수급이 어려워지며, 서비스 단가 또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 확대를 주원인으로 한 경기 불황 등에 의해 중소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IT 투자가 위축되어 일시적으로 시장 확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DX 관련 투자, 2021년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시스템 투자의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IoT 분야의 강화를 향한 협업, 인재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정 등이 진전

- 기업은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는 환경으로서 클라우드의 활용을 진행하는 한편 IoT 관련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 정보 서비스 회사는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과의 연대, 업종 특유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과의 협업, 사업 분리에 의한 주력 영역으로의 자원 집중 등을 추진.
- 지반에서는 IoT 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IT 인재의 확보 경쟁 격화를 겪고, 정보서비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서열의 자금 체계 재검토 및 전문직에 대한 고액 보수 제도의 설정 등 인재 확보를 향한 움직임이 보임.

&lt;표3&gt; 일본 국내 정보서비스 각 사의 추진 사례

년/월	기업명	추진 사례
2019년 10월	NEC	연구 실적에 따라 신입사원이나 젊은 사원에게 연 1천만 엔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2020년 1월	후지쓰	DX 지원 회사를 신설. 유능한 인재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등, 모회사(후지쓰)와는 다른 인사, 보수 제도를 도입.
2020년 10월	NEC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대기업 아발록(스위스)의 매수를 발표.
2020년 10월	IBM	클라우드, AI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년 중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을 분리할 것을 발표.

&lt;원본자료&gt;

三井住友銀行「グローバル経済と主要産業の動向(2020年度下期)」2021년 2월